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논문공모전 워크숍

글쓰기와 연구윤리



J. K. JEONG

**PROF. PH.D. IN LAW
LAW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IEF
KNU ART&LAW CENTER**

IPR 글쓰기

2

- IPR의 특징

- IT, Bio, Chemical 기술 + 권리
- 디자인 + 권리
- 음악, 미술, 소설, 영화 + 권리

❖ IP의 저변을 이루는 기술/디자인/예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

IPR 글쓰기

3

- 제1 단계 : 의문 갖기
 - 무엇이 웬지 이상하다?!
 - 왜 이상한가?
 - 사회학적/기술적/법적/공공...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 문제인식을 하기 전에 법학책을 봐서는 안 된다?!
 - 스스로를 굴레에 가두는 법규범!!!
- 의문이 없는 글은 설명문이다!

IPR 글쓰기

4

- 제2 단계 : 읽고 또 읽어라

- 사회+과학+논리학+정책학+(해석학*입법학) ≒ 법학
- 법학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
- 그저 읽고 쌓아만 두어서도 안 된다.
- 논리적으로 비판만 하고 끝나서도 안 된다.
- 추상적인 결론은 동네 할아버지들의 술자리에서도 가능한 것!

❖ **시놉시스의 완성 = 논문의 시작!!!**

IPR 글쓰기

5

- 제3 단계 : 읽고 또 읽어라

- 의문을 강화하라!
- 해법은 법학자의 몫이 아니라 그 세계 사람들의 몫이다!
- 그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조우하라!
- 한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 못 하는 외톨수들!!!
-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모두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법학자의 기본이다!

❖ IP 법학자가 되기 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IPR 글쓰기

6

- 제4 단계 : 읽은 것을 기록하라

- 학문의 시작은 티코 브라헤와 갈릴레이의 어깨 위에서!
-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재미와 같다!
- 앞선 문명의 개척자들을 경외하자!
- 그들의 경외는 ‘인용’으로...
- ‘인용’은 한 순간에 되지 않는다!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 기록은 효율적으로, 인용은 명확하게, 인용을 위한 일기
장을 손에 들고...

IPR 글쓰기

7

- 제5 단계 : 글쓰기의 시작

- 열매가 익기 전에 쓰는 글은 자신을 가둔다!
- 머리말은 자신의 언어로 당당하게 적어본다!
-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라! 음성듬성 넘겨서는 안 된다!
- 논증의 과정을 즐기면서, 논증의 우군을 기록하라!
- 논증의 우군은 내 글의 가치를 높인다!

❖ 논문의 가치는 완벽한 새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군을 많이 확보한 논증에 있다.

IPR 글쓰기

8

- 제6 단계 : 인용의 활용

- 인용은 멋진 표현에 활용하라!
- 인용은 나와 같은 생각을 보강하는데 활용한다!
- 인용은 나와 다른 생각을 쓰는데도 밝혀야 한다!
- 너무 뻔한 것들은 인용의 대상이 아니다!
- 인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가? 그럼 하자!

❖ 학문은 95%를 97%로 만드는 과정. 2% 모자란 세상에
2%를 엮는 것을 보여주자!

IPR 글쓰기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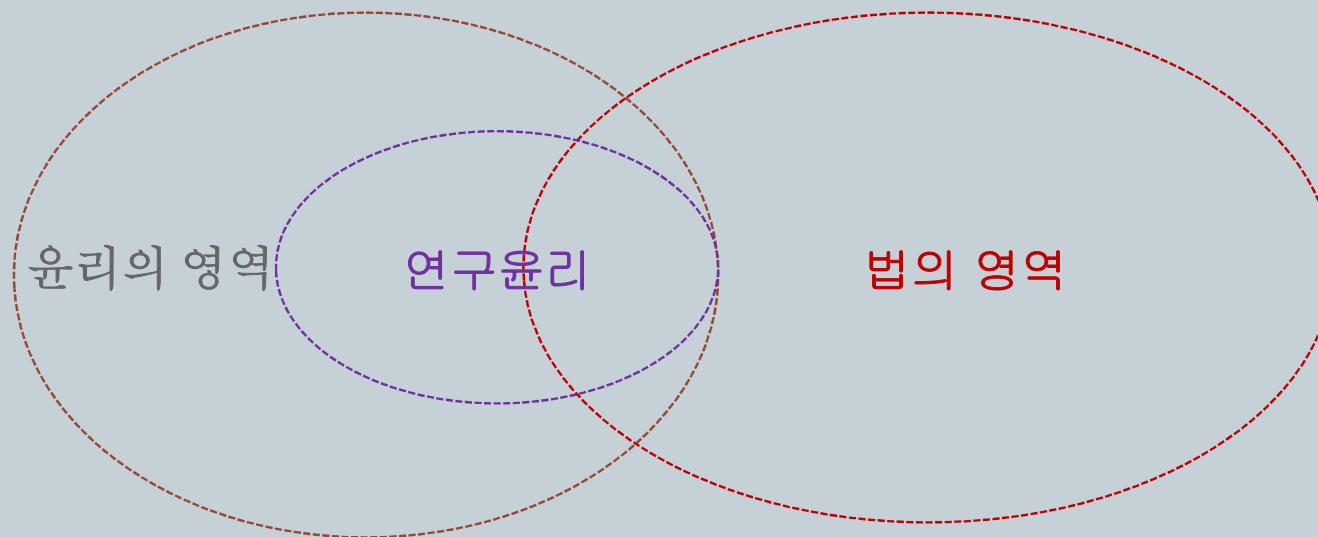
- 제7 단계 : 인용의 함정

- 인용하지 않는데 대한 두려움 없애기!
- 내 모든 생각이 인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내 멋진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다!
- 나를 비난하는가? 독자적 창작의 항변을 활용한 방어법!
- 일반적 지식, 보편적 표현, 다른 것을 보지 않은 생각들!

❖ 인용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말라
(공중그네 작가의 패러독스)!

연구윤리와 법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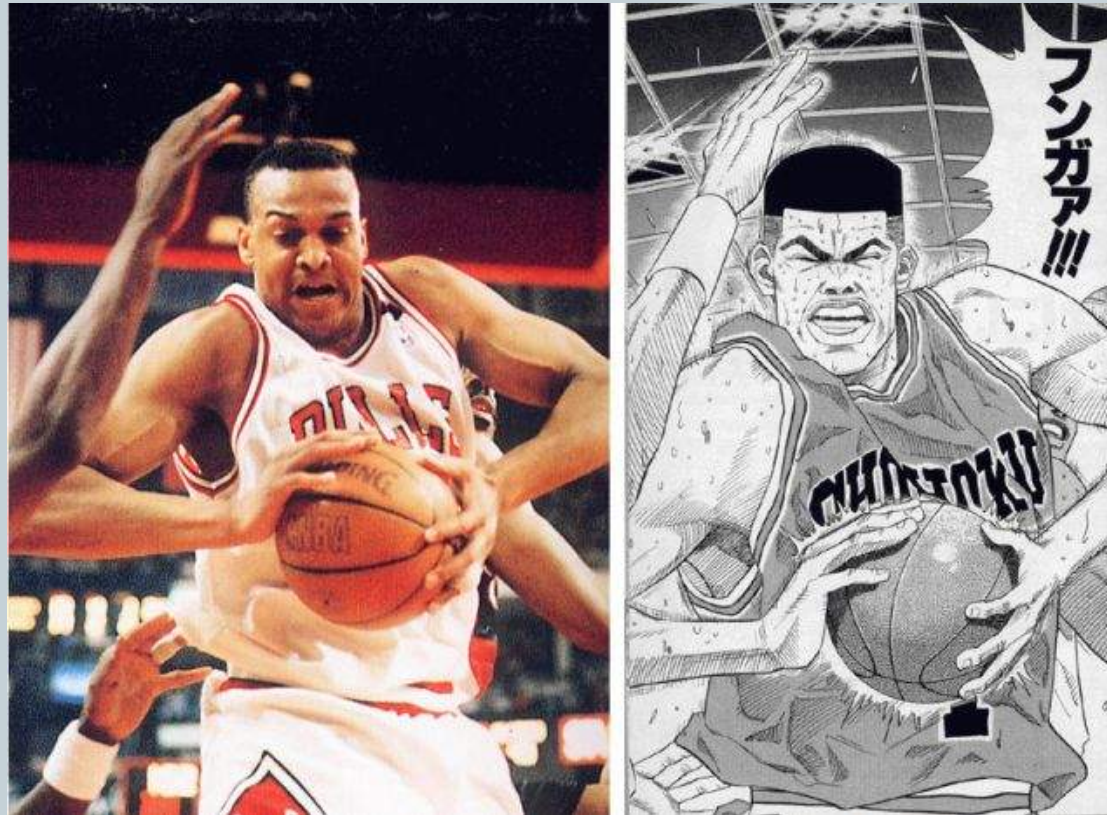
10



- 연구윤리 문제는 윤리의 문제라는 근본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 윤리적 관점에서 연구윤리 위반의 실체를 정립해야 함
- 해결수단을 법의 영역에서 찾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윤리 위반을 '비난'이 아닌 '처벌'하는 경우 신중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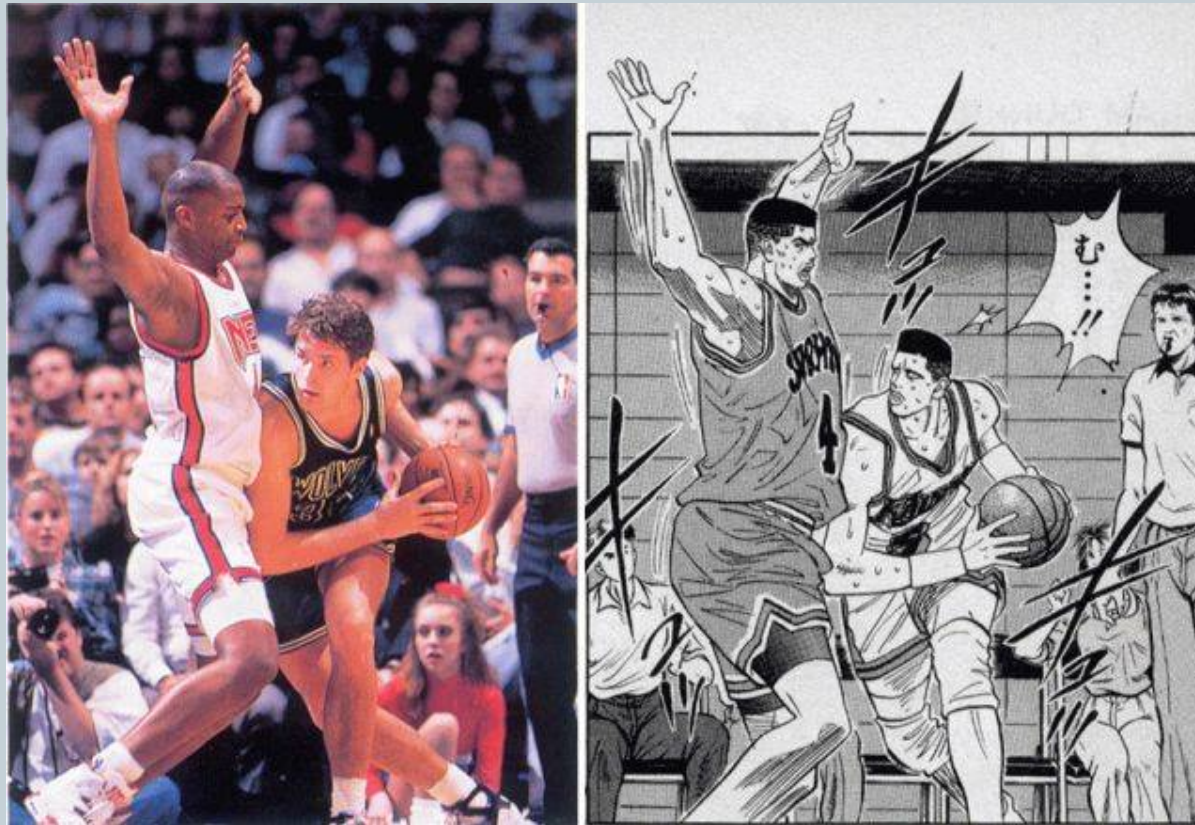
표절 논란의 사례

11



표절 논란의 사례

12



표절 논란의 사례

13



- 번안곡의 시대
 - 트윈폴리오의 “웨딩케이크”
 - 문화발전이란 무엇인가?
 - 새로운 창작과 창작적인 모방의 경계
- 청중테스트에 의한 표절논란의 오류
 - 씨앤블루의 ‘파랑새’
 - Let it be vs 해바라기

2018년 교육부 훈령

14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8년 교육부 훈령

15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절의 예방

16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표절 논란의 사례

17

- 영화 ‘왕의 남자’ 사건
 - ✦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 백과사전 인용 사건
 - ✦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와 그의 영향에 대한 논문
 - ✦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에 대해 백과사전의 내용을 4페이지 가량 출처 없이 이용한 사례
- 학습지 사건
 - ✦ 과학이론 및 주요 사례를 차용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을 달리한 사례
 - ✦ 국어과목의 문제 유형을 복제한 사례
 - ✦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일치된 사례
 - ✦ 이산수학 교재에서 이론, 문법적 특성, 용어, 문제 유형 등이 유사한 사례

표절 논란의 사례

18

- 교육서적을 동영상 강의로 제작한 사례
 - ✦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강사는 교재의 내용을 읽거나 일부를 PPT로 화면에 표시하였음
- 연구보고서의 미숙한 출처 표시 사례
 - ✦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인용한 문장마다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출처표시의 형식이 제각각 상이하고, 통상적인 출처표시기준에 미흡한 사례
- 구체적 표현이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본질 및 구성이 동일한 사례
 - ✦ 타인의 저작물과 문언적 유사성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글을 쓰게 된 동기, 연구의 방법, 전개과정, 결론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례
- 칸트의 논문 중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자기것으로 발표한 사례

표절 논란의 사례

19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 — 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흠뻑지투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와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 미시마 유키오, 김후란 옮김, 「우국(憂國)」, 『金閣寺, 憂國, 연희는 끝나고』, 주우(主友) 세계문학20, 주식회사 주우, P.233. (1983년 1월 25일 초판 인쇄, 1983년 1월 30일 초판 발행.)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흠뻑지 물은 얼굴을 씻다가도 뭘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베어들었다. 그 무르익음은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속으로도 기름지게 스며들어 이제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여자에게 빨려오는 듯했다. 여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 신경숙, 「전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창작과비평사, P.240-241. (1996년 9월 25일 초판 발행, 이후 2005년 8월 1일 동일한 출판사로서 이름을 줄여 개명한 '창비'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로 소설집 제목만 바꾸어 재출간됨.)

이응준 작가 블로그 캡처([비바]100 2015.6.19일자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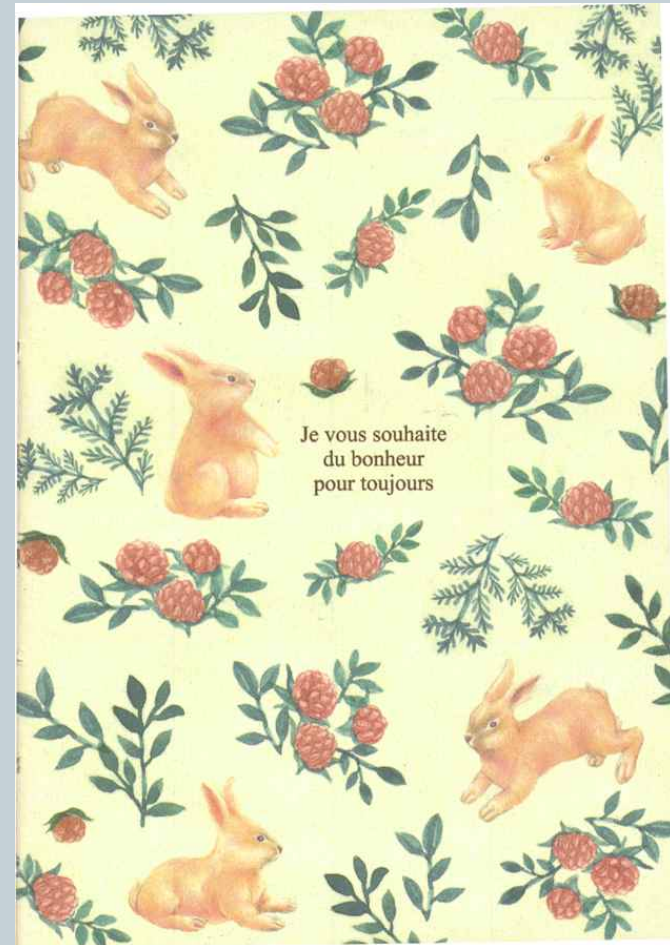
표절 논란의 사례

20



표절 논란의 사례

21



2018년 교육부 훈령

22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사례

23

○ 강의교재 사건

- ✦ 강의교재는 200*년 2인 공저로 발행되었는데, 이를 201*년에 새로 발행하면서 저를 3인 공저로 공표한 사례
- ✦ 조사 중에 새로운 저자는 다수의 수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문가는 동일한 내용의 문장의 윤문 및 사소한 오류의 수정에 불과하고, 그 양적 비율은 1% 미만이라고 판단함

○ 저자표시 순서와 관련한 분쟁 사례

- ✦ 제3저자, 제1저자, 제2저자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경우인데도, 저자의 순서를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의 순으로 공표한 사례

○ 제자의 보고서를 이용한 사례

2018년 교육부 훈령

24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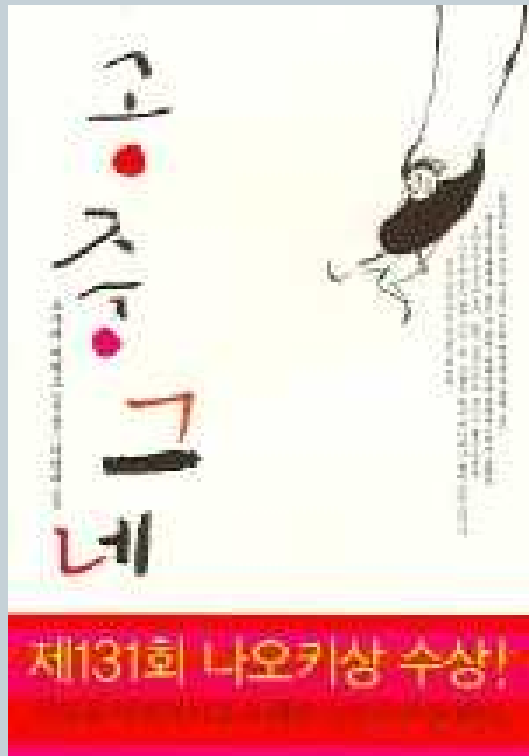
사례

25

- 논문을 북챗터에 이용한 사건
 - ✦ 학위논문의 일부를 다수의 저자가 공저한 책의 한 챗터에 이용하면서도 선행문헌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승진심사에 이를 성과물로 제출한 사례
- 학위논문 일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선행문헌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이를 승진심사에 성과물로 제출한 사례
- 제1논문의 결론을 수정하였으며,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약 2페이지의 새로운 내용을 새로 기술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1논문의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은 사례(필자가 성과물로 이용한 경우 or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 자기표절

26



책상에 앉아 이이서 원고를 썼다. 아무래도 안정이 되질 않았다. 못 보고 지나친 건 없을까.

아이코는 일어섰다. 다시 책꽂이 앞으로 갔다. 쫓기는 듯한 초조함에 휩싸여 맨스피드로 저작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상하다는 건 스스로도 안다.

그 순간, 목구멍으로 뭔가 시큼한 게 올라와, 아이코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다. 가벼운 구토를 한다. 설마, 또 온 거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2년 만에 찾아온 심인성 구토증이다.

2018년 교육부 훈령

27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사례

28

- 박사학위 논문의 학술지 게재 사건
 - ✦ 박사학위 논문을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후까지 13편에 걸쳐 이용한 사례
- 박사학위 논문을 채용서류로 제출하면서 학위논문을 대폭 수정·보완한 사례

인용과 연구윤리

29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과 연구윤리

30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서울고등법원 1990. 2. 13. 선고89나32908판결]

[1] 국내 월간잡지의 발행인들이 일본국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의 보도에 근거를 두고 위 잡지에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이나 보도, 비평을 위하여 위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창작물인 누드사진 중 일부를 인용,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된 부분이 전라 또는 반라인 젊은 여인의 사진 8점 중 일부이고 "한국 여대생, 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또는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 아래 위 작가의 사진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본국 펜트하우스지에 한국의 여대생이라고 소개되어 실린 젊은 여인의 나체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잡지는 이를 밑봉페이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 청소년 독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도서잡지 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위 사진의 인용, 게재는 그 방법 및 범위에 비추어 시사보도과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이내이거나 보도, 비평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과 연구윤리

31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2007가합18479판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메스비에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인용과 연구윤리

32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95나41279판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인용과 연구윤리

33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패러디(parody)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2001카합1897결정]

이른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용과 연구윤리

34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패스티시(pastiche)

- 패스티시란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부터 거의 변형이 없이 원작을 차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성의 일관되고 세련된 효과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패러디가 상이성을 모방하는 것과는 달리 유사성을 모방하여 전략적인 담론효과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공종구, “패러디와 패스티시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현대소설연구(5권), 1996, 226-230쪽)

인용과 연구윤리

35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오마주(homage)

- 오마주란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로서,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장르에도 널리 이용되는데, 존경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패러디나 표절과는 다르다. 도청을 주제로 현대인의 불안과 강박증을 묘사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도청>은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가 감독한 <욕망>에 대한 오마주이며, 덴마크 영화감독 라스 폰 트리에의 <범죄의 요소>는 독일 프리츠 랑의 <엠>을 오마주한 작품이고, 한국 영화 등에서도 오마주가 이용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인용과 연구윤리

36

- 바람직한 출처표시의 방법
 - 저작권법 제37조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과 연구윤리

37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서명』, 역자명(역), 판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저자명, “논문명”, 편저자, 서명, 판차(**2판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예시)
 - ✦ 홍길동·이몽룡, 『특허법상설』, 제**5**판, 한세킴출판, **2014**, **387**면.
 - ✦ 홍길동,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제문제”, 송중기(편), 독점규제법 **30**년역사, 법문사, **2011**.

인용과 연구윤리

38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서명(이텔릭), 역자명(역), 판차(2판 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저자명, “논문명”, 편저자, 서명, 판차(2판 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예시)
 -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ond edition, Oxford, 2004, pp. 25-60.**
 -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Antitrust Law Conflict in 000 Case”, Edit. by P. E. Thomas, Antitrust Law, 2nd Edition, Aspen Publicity, 2010. pp.100**

인용과 연구윤리

39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년), 면수.
 - (예시)
 - ✦ 홍길동·이몽룡,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지식재산연구』, 제1권 제1호(2008), 121-125면.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이텔릭), 권호(년), 면수.
 - (예시)
 -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Antitrust Law”, IIC, Vol.12 No.13(2014), pp.12-15.**

인용과 연구윤리

40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나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 (예시)
 - ✦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9 판결.**
 - 법률명 제○조 제○항 제○호 ○목.
 - (예시)
 - ✦ 특허법 제**41**조 제**5**항.

인용과 연구윤리

41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글쓴이, 「기사제목」, 신문명, 게재일(자).
 - (예시)
 - ✦ 홍길동, 「삼성·SK텔레콤·KT, 빅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가동」, 전자신문, 2013. 1. 23자.
 - 저자명, “기사명”, 사이트명, <주소>, 해당URL작성일자 혹은 검색일.
 - (예시)
 - ✦ 홍길동, “삼성전자 특허대응 프로젝트 가동”, 삼성전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30&aid=0002184515>>, 검색일: 2013. 7. 30.

인용과 연구윤리

42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연구보고서명”, 발행처, 발행년도, 면수.
 - (예시)
 - ✦ 홍길동,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국내 특허 및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추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저자명,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도.
 - (예시)
 - ✦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2**차 회의자료”, 대법원, **2015**



길 잃지 말고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